

전일적 디자인사고와 디자인방법에 대한 연구

A Monistic Design Thought and Method

주저자 : 이순종(Lee, Soon-Jong)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1. 서론

2. 21세기 패러다임전환과 디자인의미의 변화

3. 동서양 사고의 차이

4. 동양철학과 전일적 개념

- 4-1 도사상(道思想)과 전일론
- 4-2 불교의 전일성
- 4-3 유교(공자의 중용사상)의 미학

5. 전일적 사고의 주요 가치들

- 5-1 통일성(Unification)
- 5-2 조화성(Harmoniousness)
- 5-3 변화성(Changeability)

6. 전일적 디자인프로세스

- 6-1 통일적 사고의 단계
- 6-2 조화적 존재의 단계
- 6-3 변화의 창조 단계

7. 결론

참고문헌

(要約)

21세기에는 물질과 분석적 디자인의 중시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의미와 전체와의 조화의 개념이 중시되는 전일적 디자인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양의 전일적 사고에 바탕한 21세기의 새로운 디자인패러다임과 디자인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으로는 '유·불·도교 등의 동양사상에서 나타나는 전일적 개념이 파악되고(4장)', '통일성, 조화성, 변화성을 중심으로 한 전일적사고의 주요가치들이 분석되었으며(5장)',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방법의 대안으로서 '첫째-대상관찰, 둘째-대상평가, 셋째-대상개선'의 3단계로 구성된 전일적인 디자인프로세스가 제시되었다(6장). 그리고 결론으로서 각 단계의 중심적 디자인가치가 아래와 같이 규명되었다. 대상 관찰 단계-대상을 바라봄에 있어 분리보다는 '전일적 관점'을 중시한다. 대상평가-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차별과 대립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중시'한다. 대상개선-창조의 개념은 변증법적 발전(creation)보다는 '순환과 변용과정의 개선적 변화(process of transformation)'를 중시한다.

(Abstract)

We need to seek after new direction and order of design that puts more value on the spirits and culture of human beings in the 21st century, creating a new, all-inclusive value in which individual human being, th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can co-exist in a peaceful relationship by overcoming the materialistic, analytical, competitive, and differentiated values of traditional industrial society. The aim of this study, then, is to present a new method of design that can meet the demands of the 21st century in a civic age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culture, by focusing on Monistic ideals derived from a deeply rooted Oriental philosophy. The concept of Monism is embodied by a mind set that treasures the benefit to others over rewards to the self, puts more importance on the spiritual life hidden behind physical phenomena, thinks more of what lacks than what exceeds, elevates the mind over the body, and seeks after beauty via a total harmony of balance and development that can be feasible only by combining all these elements. Ultimately, the new design principle based on the Monism consists of three basic elements: (1)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between things under the perception that all things are one (Unification); (2) the ability that helps things exist with appropriate beauty maintaining balance and stability (Harmony); and (3) the attitude of sharing to maintain sustainable vitality by filling up what lacks or is missing in a whole(Change).

(Keyword)

Oneness, Oriental philosophy, New design paradigm, Design process

1. 서론

지난 20세기 산업사회의 디자인패러다임은 분석적, 가설적, 선형적, 물질지향적, 합리적, 처방적 가치였다.¹⁾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전체를 작은 세부 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이었다. 많은 이론가들은 21세기의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은 종합적, 경험적, 순환적, 인간중심적, 감성적, 서술적일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과 분석에 바탕을 둔 이와 같은 디자인 사고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새로운 문제의 유형들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래의 디자인은 이미 자연과 사회생태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조화와 전일적 측면의 가치가 보다 더 강조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자인가치의 전환경향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전일적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으로써 전일적 디자인의 개념적 프레임과 디자인 원리를 제안하는데 있다. 전일적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는 오랜 시간을 경과하며 자리잡아온 동양사상-도사상, 불교, 유교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일적 사상은 여러 부분들을 전체적인 하나로 조화하고 통일시켜 큰 하나로 만드는 개념으로서 '모든 물을 존재시키는 원리'이다.²⁾ 이와 같은 개념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디자인 현상을 설명하고 새로운 디자인원리를 제안하는데 있어 커다란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정보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서구적 관점에 바탕을 둔 분석적, 물질중심적 디자인 사고 및 방법을 초월하여 동양적 사고, 특히 전일론에 바탕을 둔 디자인 가치의 재해석과 함께, 전체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디자인 원리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일사상의 세부 가치체계인 전체성, 조화성, 변화성이 새로운 디자인원리의 바탕을 이루면서, 이들 가치들의 디자인과정에 적용방향이 제안된다.

이 연구는 크게

첫째, 시대적 패러다임과 디자인의 의미의 변천,

둘째, 동양사상과 전일적 사고

셋째, 전일적 디자인원리와 과정으로 구성되고 있다.

2. 21세기 패러다임전환과 디자인의 의미의 변화

피터 드러커를 위시한 일군의 사회학자들은 이미 지식사회의 도래를 주장하고 있듯이,³⁾ 이제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그리고 지식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과거 20세기의 산업사회는 요소와 분리에 바탕 한 '분석적 사고', 기계적 표준화에 바탕 한 '보편적 가치', 자본주의에 바탕 한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 혁신과 변화, 욕망과 재화 등이 생활의 주된 가치로 형성되었고, 결과적으로 물질중시의 산업사회는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켰다.

한편, 정보와 지식사회로 명칭되는 미래사회에 대해 이론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초 물질과 균형적,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를 중시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에 바탕 한 '가치관의 다양성과 함께, 이들 가치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복합화', 그리고 '환경과의 공생과 조화를 위하여 환경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동일시하여 생각하는 전일적 사고'가 보다 중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는 빠른 속도로 유기체 적이고, 종합적이며, 전일적인 세계관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우주는 하나의 생동하는 유기체이며, 각 부분들은 상호 연결되어 역동적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관점'으로⁴⁾, 이미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가치전환은 정치, 경제는 물론 기술과 문화의 측면에서 상호영향을 받으며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량생산과 유통, 소비패턴에서 유발된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의 전 지구적 심각성은 이제 인간의 생활방식을 '절약적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로 전환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전환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디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견해는 각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 시대를 맞으면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21세기 인간정신과 문화 그리고 환경가치가 중시되는 디자인은 과거 20세기의 전통 산업사회에 만연되었던 물질만능과 시장위주의 분석적, 경쟁적, 차별적 가치의 생산을 뛰어 넘어 인간, 사회, 환경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창조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방향과 질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최근의 디자인가치는 과거 산업시대의 전통적인 디자인의 가치를 벗어나는 커다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의 분석적 부분적 디자인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디자인 개념이 강조되고', '과거의 단순한 가치에서 보다 다양한 가치가 내재하고', '과거의 경쟁과 차별중심의 가치관에서 서로 다른 가치 간에 공존과 조화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동양은 직관적 정신으로 인간의 주체적 자유를 획득하는데 주력했고, 서양은 물질로서 현실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과학문명을 발달시키는데 힘을 쏟으로써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말을 낳았다. 이제 동서의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합된 사고로 동도와 서기가 각각 따로 구분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여 일체가 되어 닥쳐올 미래를 현명하게 맞이해야 할 때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음양과 종합적 사유를 바탕으로 물질보다는 비가시적, 정신적인 질서와 조화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 불, 도교의 사유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의 일원적 사고방식은 분리적 요소와 환원적 관점보다는 전일적 관점을 중시하였고, 변증법적 발전보다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순환으로의 변화를 중시하고, 경쟁과 차별화의 가치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중시함으로써 미래의 사회가치의 흐름과 상통하고 있다. 서구 정신에 있어 위대한 전기를 마련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는

1) paradigm(=disciplinary matrix) : 어떤 과학사회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 법칙, 지식, 가치 및 전통을 통틀어 말하는 매우 종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모형', '모델', 또는 '약속'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필자 주).

2) 민경우 외,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연구. 산업자원부, 1996, p.125.

3) Drucker, Peter F., 현대경영연구원 역, Knowledge Management, 21세기 북스, 1999, pp.40-41.

4) 민경우외, p.127

데카르트의 고전물리학의 기계주의적 우주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우주를 살아있는 하나의 전일적이며 통일적 유기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전일론적인 동양적 우주관에 접근시키고 있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일원론적 사고의 재발견과 디자인에의 적용은 디자인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 해결함으로써 지금까지 산업사회의 디자인이 밝아온 여러 병폐를 막고 범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사고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3. 동서양 사고의 차이

동서양의 문화는 기본발상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디자인과 미에 있어서 상이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서양문화의 차이를 우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양의 문화의 어원은 '경작하다 (to harvest)'와 '만든다(to make)'에서 출발하고, 미술이나 아름다움도 '만드는 기술(skill to make)'의 의미를 갖고 있다(Oxford dictionary).⁵⁾ 이와 달리 동양 문화의 모태는 '천, 지, 인'이며, 아름다움은 천, 지, 인간의 교감으로부터 창출되는 산물로서, 자연 스스로를 잘 반영하는 것이 인공적인 기술의 처리 결과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동양에서는 '자연의 법칙' 그 자체를 진리와 율바름을 추구하는 도(Dou, Tao)로서 인식한다. 서양인의 자연은 사람이 놀고 이용하기 위한 존재였지만, 동양인의 자연은 인간이 경탄하고 놀고 배우는 것이었다. 자연의 법칙에서는 가치들, 예로 실재-비실재, 추-미, 선-악 등은 자라고 바뀌며 특정상황에 따라 역동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동양문화를 이해하는 바탕을 제공한다. 노장사상에서 "도는 자연에서 그 법을 본받는다(道法自然)"라고 하고 있듯이 동양의 자연은 스스로가 선(禪)이요, 도(道)요, 법(法)이다. 따라서 자연의 깊은 이(理)를 깨닫는 것이 동양사상과 문화 및 조형의 기본이 되어왔다.

동양과 서양의 미적 개념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양의 문화나 미적 개념은 자연, 철학, 전일적 사고와 보다 밀접하고, 서양의 문화는 개인, 물질, 분리의 사고와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동서양 문화와 미적 개념의 차이 (Munro, 1989)⁶⁾

Culture		Beauty	
Orient	West	Orient	West
naturalism	human centered	live	mechanical
monism	dualism	weak.flexible	hard.rigid
religious	scientific	deep.calm	surface
emotional	rational	simple	complex
mental	material	frank	artificial efficiency
meaning	practical	curve	strait
subjectism	objectism	oneness with nature	break from nature
specialty	generality	harmony	dualism
instinct, experience	analysis	totalism	individualism

5) 조용진, 미술교육, 인체와 미술문화, 미술교육, 1988, p. 114.

6) Munro, Thomas, 백기수 역, 동양미학, 열화당, 1989

4. 동양철학과 전일적 개념

4.1. 도사상(道思想)과 전일론

동양의 문화는 도교, 불교, 유교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다. 노자의 도사상은 가치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 즉, 자연속의 모든 변화는 음양 양극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빚어 낸 것이다. 즉 도의 기본 원리는 '가치의 상대성'에 관한 것으로 존재의 가치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고, 변화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 본질은 음-양, 실재-비실재, 미-추, 좋음-나쁨 등을 구분하여 대립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깔려 있는 전체적 연관성속에서 보는 것이다. 즉, 전일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흔히 유의 존재는 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도(道)의 성취나 사고 및 물질 대상의 이해에 있어서 하나 무를 중요시하고 무, 유의 통합적 이해가 중요하다.

도(道)의 원리는 자연의 섭리에 두고 있다. 즉, 자연법칙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것, 즉 꼭 알맞은 것, 음과 양의 조화, 역동적인 평형 및 균형인 것이다. 따라서 도의 이상과 목표, 즉 존재의 완전은 남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빠짐, 모자람, 결점이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나침이 없는 것이고, 좋은 것이다. 유약과 겸손과 낮음으로 도달된 도(道)는 모자라거나 어수룩하여 보인다.

음과 양, 유와 무, 추와 미, 선과 악 등은 자연의 법칙에서 볼 수 있듯이 역동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상황에 따라 음양이나 대립적 가치는 계속 반복, 성장, 변화한다. '자연은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도의 개념에서 생성되는 만물은 서양적인 창조의 개념이 아니며 단지 자연관에서 말하는 변형과정의 뜻이다. 즉, 도(道)에서의 창조(創造)란 진보(進歩)를 추구하는 것이다. 무릇 나쁜 것, 만족치 못한 것을 발견하여 남는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도사상에서는 삶과 창조에 있어서 엘리트의식을 철저히 배격하고 밝은 지혜를 간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모방은 자기자신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 경계한다. 따라서 도의 분별 있는 생활양식은 '자기자신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도(道)의 이론의 실천함이 된다. 또한 도의 특징으로는 현상학적인 열려있는 태도 즉, 체험의 영역을 넓히고,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없애며 사유의 범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도사상에서는 '하지 않으나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를 통하여 무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도(道)의 필연적 귀착점이며 출발점이기도 한 무위(無爲)는 문자상으로 비 활동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 의미는 비교적 적은 활동, 또는 덜 일하는 것이며, 진행 중인 우주과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 창조에 있어서 무위의 개념은 일이 있기 전에는 마음을 비우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봄으로써 준비를 하라는 뜻이며,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자(慈)로써 사리 판단 선택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겸(儉)으로써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불감(不感)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자(老子)는 “완전한 것은 오히려 결함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용도에는 흠이 없다. 가장 알찬 것은 오히려 빈 것 같으나 그 용도는 무궁하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도(道)를 닦으면 날마다 할 일이 줄어든다”라며 완전함의 어수룩함과 겸손함, 낮음의 원리를 강조한다. 또한 노자(老子)는 당신이 무언가를 지니려 하면 그 반대되는 무엇을 그 안에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부러라, 그러면 당신은 곧게 되고,
 텅 비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가득 찰 것이며,
 다 닳고 헤지면 새로울 것이니.⁷⁾

4.2. 불교의 전일성

모든 불교도의 수행은 전일성(비이원적인 전체성)에 도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원히 비이원적인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성불(成佛)과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만일 물건이 아름다우면 우리는 그것이 성불(成佛)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도의 입장에서 불 때 진정한 미(美)는 미(美)와 추(醜) 사이의 구분이 없는 영역, 즉 미(美)와 추(醜)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세계 속에 존재한다. 여기에서 진정한 미(美)는 이원성이 문제되지 않는 자유스런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직 비이원적인 전체성을 드러내는 아름다움만이 진실한 것이다.

인간의 천성은 이원적이지 않다. 비이원적인 총체(總體)가 인간 본연의 상태이다.

사물을 둘로 나누는 것은 본연지성(本然之性) 이후의 일로서 비자연적인 것이다. 미와 추의 구분은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혀 인위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원성이라는 오류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향이며 구원이 약속된 비이원성의 세계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4.3. 유교(공자의 중용사상)의 미학

유학(儒學)의 핵심은 인(仁)이다. 또한 경천애인(敬天愛人)은 도(道)의 실천적 덕목이다. 인(仁)은 인(人)이 완성된 인격체, 그것이 곧 도(道)이다. 근본을 힘쓰면 도(道)가 생기는 것이다. 근본이란 인(仁)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인위를 피하고 자연의 명에 따르는 것을 순리와 중용으로 해석한다. 유학에서 중용은 최선의 바른길을 찾는 것으로서 이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평상의(바뀌지 않는) 이치이다.

이와 같이 동양사상의 근원은 자연의 법칙에 바탕하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 바탕을 둔 동양사상은 모든 가치의 상황에 따른 상대성을 강조하여,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이원적으로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 즉 전일적으로 볼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존재의 이해) 존재의 가치는 음양 등 실제의 근원에 깔려 있는 전체적 연관성에서 보아야 한다.
- (존재의 목표) 존재가치의 이상과 완전함의 의미는 지나침, 모자람, 결점이 없는 알맞은 음양의 균형과 조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 (존재의 창조) 존재의 창조란 폐기적 혁신이 아닌 만족지 못한 것을 발견하여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개선적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7) 노자. 오강남풀이, 도덕경, 현암사, 2002, pp.103-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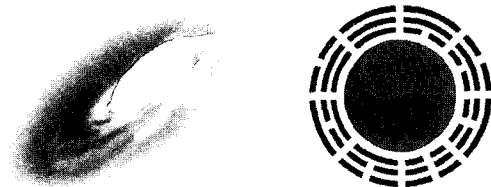
- (창조의 방법) 올바른 창조의 방법은 일이 있기 전에 현상학적인 열려있는 태도 즉, 체험의 영역을 넓히고,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없애며 사유의 범위를 자유롭게 하며, 사랑과 자비로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검약으로서 조형하고, 비움으로서 조형이 귀결될 것을 이야기 한다. 이것이 무위에서 출발한 존재창조의 방법이다.

5. 전일적 사고의 주요 가치들

20세기의 디자인가치가 '대립과 차별화'라면 동양사상에 근간한 '전일과 조화'의 정신은 21세기 문화와 디자인 정체성의 큰 축이 될 것이다. 전일성은 '조화' 혹은 음양의 법칙에 따른 '인간, 자연, 그리고 우주의 모든 존재를 조화롭게 하는 기본 원리를 의미 한다. 더 나아가 전일성의 의미는 '모든 사물의 존재 원리'로서 확장될 수 있다. 전일성은 여러 부분을 큰 하나로 조합하고 통일시킨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전일성의 가치는 모든 사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며, 더 나아가 우주상의 모든 존재를 운행시키는 원리이다. 그리고 전일적 가치는 자기 개인보다 이타(利他)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 물질(物的)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고, 과거 뒤에 부족한 것, 물질에 가린 정신, 유(有)에 대비되는 무(無)를 생각하고, 이들 요소들을 결합시켜 총체적인 균형과 발전을 통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전일성은 바로 '통일성(Unification), 조화성(Harmoniousness), 그리고 변화성(Changeability)'의 가치들을 통합'시키고 있으며, 이들 가치의 핵심은 태극(음과 양)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 속의 많음과 많음 속의 하나'의 가치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들 세 원리들의 상호작용은 전일성의 원리를 낳게 한다.⁸⁾

그림 1: 천체시스템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태극은 음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



5-1. 통일성(Unification)

통일로서의 전일론은 여러 부분을 큰 하나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항상 종합성이나 전체성의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전일론은 주체와 객체, 유와 무, 물질과 비 물질, 동과 서, 과거와 현대 등 각개의 요소와 사물을 대립을 통한 변증법적 성질로 파악하기 보다는 그 근본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큰 하나로 보는 것이다. 즉 전일론에서는 진리나 가치의 기준을 양쪽으로 나누고, 직선의 한쪽에 단정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둥근 원에 둔다. 이는 마치 물과 얼음은 형태상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과 다름이 없고, 낮과 밤은 다르게 보이지만 낮이 바뀌면 밤이 된다는 이치이다. 전일론은 주체와 객체의 이원적 관계를 전일적인 하나로 보는 것이고, 너와 나를 하나의 우리(We)로 보는 것이다.

8) Lee, Soon-Jong, A Study on the Monistic Design for New Design Paradigm, Asian Design Conference, Zsukuba Univ., Japan, 2003.

5-2. 조화성(Harmoniousness)

전일론에서의 조화는 인간과 인간, 물과 물, 인공물과 자연환경이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입장에서, 각각의 존재가치 가운데, 상호유익하고 밝고 평화롭게 서로가 협동하고 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일론에서의 존재가치는 자기 자체 안에 자연히 조화성을 가지게 된다. 전일론적 조화의 아름다움은 전체 속에서 요소들이 역동적인 균형의 과정을 통하여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꼭 알맞은 어울림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즉 '알맞음'이란 물질과 정신, 유와 무, 과거와 현대, 지역과 국제 등이 균형을 갖는 것이다. 예로 '항아리의 외형적 존재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빈 공간의 쓰임을 위해 물질로 구체화된 것'처럼 조화의 아름다움은 무와 유의 균형과 상호통합을 통한 중용의 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5-3. 변화성(Changeability)

전일론에서의 모든 존재는 어떤 정해진 단계에서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단계를 향하여 부단히 변화하고 전진(前進)함을 지향한다. 변화의 관점에서 일원론은 전진하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운동하고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재하는 원인으로 스스로 약동한다. 즉 '자연(自然)은 조화(造化)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생겨난다'라는 뜻으로 변화의 원리는 유전(流轉)적인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변화의 무위화(無爲而化)의 법칙과 같이 모든 사물과 존재는 성하는 새 것과 쇠하는 낡은 것이 서로 교체되며 항상 새로움을 지향하는 변화의 작용을 따른다. 궁극적으로 전일론에서의 변화나 새로움은 자연에서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에 채워 상생상극(相生相克)'하는 모습에서처럼, 전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전체가 발전적으로 약동하는 것이다.

6. 전일적 디자인프로세스

전일적 사고의 세가지 주 개념을 이해하고 디자인에의 적용함으로써 21세기의 디자인미학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원리와 프로세스를 제시할 수 있다. 즉 통일성의 개념은 디자인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Unification > Understanding), 조화성의 개념은 디자인된 사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응용할 수 있다(Harmoniousness > Evaluation). 그리고 변화성의 개념은 구체적인 조형화의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겠다(Changeability > Form-giving). 결국 전일적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완성해 가는 프로세스로 이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주객을 불이의 큰 하나로 바라보며(Unification), 그 안에서 애정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결함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서로 채워 가는 나눔의 정신이며(Changeability), 그래서 전체가 균형 있게 알맞음으로 귀결되어(Harmoniousness) 상호 유익함 속에 공존하며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9)

6-1. 통일적 사고의 단계(Observation Stage)

전일적 디자인에서 통일적 사고는 디자이너가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그 안에 내재한다.

a. **종합적 사유:** 전일론의 통일적 사고는 전체에 바탕하여 서로 다른 여러 요소들을 큰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단일적 입장보다는 전체적 입장에서, 분석적인 사유(事由)보다는 종합적인 사유(事由)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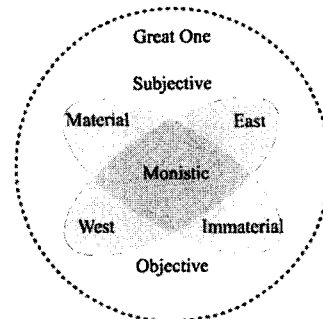
b. **전체의 중시:** 전일론의 통일성은 개체보다는 전체적인 집단을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라는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c. **주객의 합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주객 모두가 비이원적인 전체성 속에 융합되었을 때 탄생한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인식은 자기 자신을 대상에 투사함으로써 생겨나며, 주체와 객체 사이(디자이너, 기업가, 대중사이)의 합일(合一)에 의해 생겨난다. 모든 디자인과 예술과 아름다움은 그것을 향유하는 대중과 호흡하여야 한다.

d. **모임과 소통:** 전일론적 요소들과 존재들간의 모임이 상호작용의 관계로 이어질 때 통일로 승화된다. 즉 전일론의 통일은 떨어져 있는 여러 조각과 단위를 포함시키는 모임을 중시하고, 상호 정서(情緒)적인 소통(疏通)을 도모하는 것이다.

e. **내재적 질서:** 그리고 통일 속의 요소간의 상호관계에는 질서가 존재한다. 예로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은 서로 다스리며, 예의는 서로 나누고, 어려움은 서로 돕는다는 식의 규범이다.

그림 2: 통일성의 원리



6-2. 조화적 존재의 단계(Evaluation stage)

전일론의 조화의 개념은 사물이 주변과 균형 있고 안정되게 존재하는 원리로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조화는 자연스런 순리정신에 입각하여 사물들을 상호간에 어울리게 하는 정신이다. 이는 사물을 개별보다는 일체와 포괄로 파악하는 사고에서 가능해진다.

a. **균형과 통합:** 조화는 자연의 법칙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같이 전체 속에서 요소들이 역동적인 평형 및 균형의 과정을 통하여 음과 양이 조화롭게 진행되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꼭 알맞은 어울림의 상태'이다. 일원론적 아름다움 즉, '알맞음'이란 물질과 정신, 있음과 없음, 과거와 현대, 지역과 국제 등이 균형과 상호통합을 중시하는 것이다.

b. **상호의 공존:** 조화의 디자인 사고는 모든 사물이 그 근본에 있

9) Lee, Soon-Jong, New Values of East Asian Design in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International Design Confer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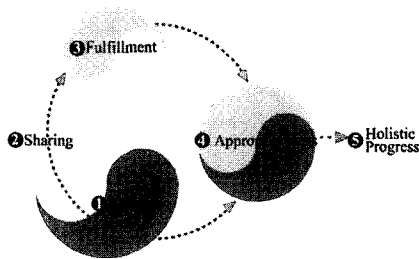
어서는 하나라는 자세로 서로 다른 것과 대화하고 교감하며, 상호 유익함 속에 평화롭게 협동하며 공존을 향해 나가는 밝고 바른 사물의 존재가치를 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c. 순리와 조화: 이는 인공물이 자연체나 주변과 만나지 않도록 해악과 날카로움의 요소를 배제하고 순리적으로 조화되고 보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화는 대비와 독특함을 찾기보다는 항시 큰 하나 속에 어떻게 다른 것과 잘 어울릴 것인가를 중시한다.

d. 애정과 대화: 통일과 조화를 이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의 중요한 요인은 정(情)이다. 정은 친근과 애정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 서로간의 교감 등 상호관계의 밀착성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자란다. 또한 대화와 교감은 마음을 열고 남을 받아 들일 때 가능하다.

e. 상호 존중: 또한 정은 개인보다 타인과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의 일원으로 조화를 모색하고, 상호존중하고, 함께 결정하고, 공존하려 할 때 발생한다.

그림 3: 변화와 조화의 원리



6-3. 변화의 창조 단계(Creation stage)

변화의 디자인 태도는 무위에 바탕을 두고 절제하며, 이타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이며, 허와 비움을 통하여 유연한 수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창조의 원리에 해당한다.

a. 이타와 나눔: 전일론적 아름다움의 창조는, '자연은 남은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속에서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 요소, 사물, 행위, 의식 등을 서로 나누고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전일론의 아름다움의 변화는 과잉 뒤에 부족한 것, 자기 개인보다 이타(利他)를 생각할 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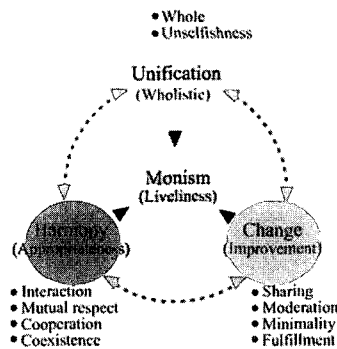
b. 절제와 개선: 전일론에 있어서 물의 창조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개선의 개념'이다. 이는 대상과 조형에 있어서 물적 요소와 에너지의 최소화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상황에 따른 유용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절제하는 자세나 미학과도 밀접하다.

c. 생략과 추상: 전일론의 변화가치는 허세와 불필요한 요소의 절제나 적음, 낮음, 비움, 여유, 깊이, 그리고 과감한 생략과 추상화를 통하여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 스스로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역동적인 변화와 생명의 가치를 지속하게 된다.

d. 속지와 직관: 전일론에서의 창조성은 경험과 속지를 바탕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직관을 키우고, 천편일률적 형식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관념과 추상적, 직관적 방법으로 적용원리를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전일론적 변화와 창조는 정해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의 상황에 따라 관념적, 추상적, 직관적인 개념으로 새로운 원리를 설정하여, 물 흐르듯이 상황과 용도에 적합한 기능, 기술, 재료, 구조, 비례, 형태를 발견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물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상상력과 구성력의 탁월함은 바로 생활과 사물의 유용성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철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한 숙지성에서 발현된다.

그림 4: 전일적 디자인의 원리



7. 결론

21세기의 디자인 가치는 과거 산업사회에서의 지나친 시장경쟁 관계와 물질중심적 사고를 초월하고 지구생태계와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간가치의 창조의 노력은 물론 인간간, 인간 환경간의 참다운 소통과 통합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 개념화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전통적인 동양과 한국의 전일적 정신은 전체적 사고, 자연중시, 정신중시, 특수성 중시의 미래의 사회와 문화가치와도 맥락을 같이 하여 미래의 보편적이고도 세계적인 디자인 가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전일론의 원리는 대자연의 음양의 이치로서 모든 물건을 만들어 가는 원리이다. 전일론의 기본적인 가치는 상반되어 보이는 요소와 요소들을 일원적으로 해석하여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높은 차원의 큰 하나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전일론의 디자인원리는 1) 전체가 하나라는 인식 하에 사물간에 주체와 객체를 동일인시하며(통일의 사고), 2) 균형과 안정 속에 알맞음의 아름다움으로 사물들을 존재케 하며(조화의 사고), 3)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기 위하여 전체 속에서 부족하고 결함 있는 것을 채워 가는 나눔의 자세(변화의 사고) 등 3가지의 기본 원리로 구성된다.



첫째, 전일적 디자인의 통일적 사고는 큰 하나라는 전체의 가치 속에서 이와 기, 무와 유 등 세부 요소적 가치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사고는 과거 산업사회시대에 디자인에서 보여 왔던 요소와 개인의 가치보다는 전체와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고, 분석과 분리에 의해 사물을 해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종합과 합일적 자세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가치를 직선의 양단

에 놓고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 있어서는 큰 하나라는 입장에서 순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전일론에서 통일의 가치는 만남과 모임, 그리고 그 안에 상호 정서적인 소통, 즉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둘째, 전일적 디자인의 조화의 사고는 전체나 통일 속에 내재해 있는 요소들 간에 어울리는 관계성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즉 조화의 디자인은 요소들 간에 어울림으로, 예를 들어 이와 기, 음과 양, 불협과 조화, 자유와 규율, 미와 추, 자연과 문명, 형이상과 형이하, 도와 기(器)의 상보성과 중용(中庸), 그리고 역동적 균형을 의미한다. 조화적 디자인사고의 특징은 과거 산업사회의 경쟁과 차별적 가치를 초월하여, 협동과 조화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성과 일방보다는 애정과 대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비와 개체보다는 균형과 통합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요소들의 가치 간에 알맞은 상태를 강조한다. 그러나 진정한 조화의 의미는 정체나 고착된 조화가 아니라 어떠한 일단(一端)에 치우침이 없는 영원한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뜻한다.

셋째, 전일론적 디자인의 변화의 사고는 바로 엔트로피의 감소-즉 규율과 절제와 축약과 정보의 효율-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창조를 본질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일론의 변화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최선의 가치로 삼는다. 즉 전체 안에서 남은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채우는 보충과 상생을 창조의 원리로 한다. 전일론적 창조의 변화와 창조의 과거 산업사회의 폐기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절제와 순환적 개선의 개념이 강조되고, 이기적 욕망보다는 이타적 나눔이 강조된다. 또한 창조의 사고과정은 과거 산업사회의 귀납과 이성에 바탕하기보다는 연역과 직관을 중시하고, 정해진 문제해결의 원리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보다 중시한다.

표 2: 전일적 디자인의 단계와 단계별 주요 고려가치들

Monistic Design Stage	Design Elements
Un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listic & group values • Synthetic & unified methods • Circulative & monistic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erative & harmonious Values • Balancing & unificative methods • Intimacious & conversative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truistic & sharing values • Moderate & minimal improvement methods • Deductive & intuitive process

디자인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삶의 아름다움이다. 더 나아가 일원적 디자인의 목표는 바로 생명성과 아름다움과 선의 추구이다. 전일론적 디자인의 핵심은 도(道)와 기(器), 또는 이와 기의 가치가 큰 하나의 디자인에 통합되는 것으로서, 이는 곧 큰 하나의 태극(太極)적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 디자인은, 전일론적 입장에서 그릇[器]의 형태 디자인과 함께 궁극적으로 그 '그릇을 인식하는 사고의 디자인'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 가치에의 관심과 함께 보다 절제된 내면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디자이너는 상상력의 자유와 함께 절제와 축약의 규율적인 측면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afra, Fritjof, The Tao of Physics, bantam Books, New York, NY., 1976.
- Drucker, Peter F., 현대경영연구원 역, Knowledge Management, 21세기 북스, 1999.
- Munro, Thomas, 동양미학, 열화당, 1989.
- Lee, Soon-Jong, New Values of East Asian Design in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International Design Confer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 Lee, Soon-Jong, A Study on the Monistic Design for New Design Paradigm, Asian Design Conference, Zsukuba Univ., Japan, 2003.
- 노자, 오강남풀이, 도덕경, 현암사, 2002.
- 민경우 외,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연구, 산업자원부, 1996.
- 조용진, 미술교육, 인체와 미술문화, 미술교육, 1988.